

신앙인으로서 엘 그레코

때는 1571년 10월7일, 그리스 앞바다 레판토에서 큰 해전이 벌어졌다. SALT 라는 약자로 표현하는 서양사에서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레판토 해전이 이날 벌어진 것이다. 부연하면 이른바 4대해전은 살라미스 해전, 악티움 해전, 그리고 레판토 해전 마지막으로 트라팔가 해전을 일컫는다. 여하튼 이 해전은 서양사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오스만 제국의 무슬림 세력과 유럽의 가톨릭 세력이 맞붙은 이 해전에서 서구세력이 승리한다. 따라서 지중해 제해권은 잠시 가져오지만 그 후폭풍은 서구 가톨릭 세계를 격동의 시대로 만들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해전의 승전일인 매년 10월 7일을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리고 있다. 당시 교황 성 비오 5세가

신성동맹의 승리를 기원하며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기 때문이며, 레판토 해전의 승리는 성모 마리아의 도움 덕분이라고 확신했다. 엘 그레코(1541-1614)가 30세 되던 해였다.

그가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 촉발된 유럽 전역에 퍼진 종교개혁의 열풍 속에서 반종교개혁의 기수를 자처하며 적극적 가톨릭 옹호국가인 스페인으로 가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배경 속에서 젊은 시절을 지나 죽을 때까지 스페인 톨레도에서 보내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엘 그레코도 작품을 통해 그 시대 정신을 더욱 가톨릭 신앙으로 승화시킨다.

엘 그레코의 작품을 보노라면 신비주의적 직관과 열정적 신앙관이 넘쳐 흐른다. 그는 전 생애를 걸쳐 프로테스탄트에 대항하는 종교화에 매달리다시피 했다. 그의 화력을 보면 그럴 만도 했다. 젊은 시절 그는 비잔틴 이콘 화를 섭렵하고 그 방면에 일가를 이룬다. 그레코가 처음 스페인에 발을 디뎠을 때는 신비주의 영성가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1515~1582)와 십자가의 요한(1542~1591)이 한창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레코 작품의 주제는 이런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상당수가 신비로운 영적 체험, 예수 혹은 성자가 행한 기적 같은 신비로운 사건들이 주를 이룬다. 여기 이 작품도 그 중의 하나이다. '성 마르티노와 걸인' (1597/1599, 미국 워싱턴 주National Gallery of Art)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성 마르티노(316-397)를 그린 그림이다. 초세기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 특유의 기적의 체험은 많은 작가들의 테마가 되었지만 엘 그레코의 작품처럼 독특하지는 않았다.

마르티노는 로마 군인으로서 갈리아에서 복무 생활을 하던 중에 어떤 환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마르티노가 야미앵 시 성문에

이르렀을 때, 추위에 떠는 한 걸인 한 사람을 만났다. 이를 본 그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 걸인에게 자신의 망토 절반을 잘라 주었다. 그날 밤, 마르티노는 꿈 속에서 자신이 걸인에게 준 망토를 걸친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예수가 천사들에게 "마르티노는 아직 예비 신자이지만 나에게 이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마르티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잘라졌던 그의 망토가 완전히 새로 복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엘 그레코는 '오직 믿음뿐'이라는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에 맞서 가톨릭의 주요 덕목인 자선과 선행을 행하고 있는 성자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작품은 성 마르티노가 추워서

떨고 있는 걸인에게 자신의 망토 반을 잘라서 주는 순간을 포착했다.시대적 배경에 따라 신앙관이나 믿음의 형태가 다를 수 밖에 없고 또한 당대의 문화적 수준과 괴리될 수도 없다. 종교의 신비 체험은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사회적 변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신앙심과 무관하지 않다. 2천여년을 이어오며 가톨릭 교회가 전세계 정보망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는 말도 있다. 전세계에 퍼져있는 각 개별교회의 신앙생활을 포함한 모든 현실적 문제가 바티칸으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종교의 역할은 신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시대 정신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보편적 인권의 보호가 교회를 통하여 사회에 구현되는 일도 보편적 일이 되었다. 약자에 대한 배려로서 자선과 선행은 가톨릭 정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됨의 증명이다.

철저한 가톨릭 신자인 엘 그레코는 프로테스탄트를 이단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비적 체험을 통해 자선과 선행에 대해

그의 강력한 예술혼을 무기로 설파한다. 시대의 흐름으로 인하여 지금의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서는 신구교 간의 이질감도 많이 줄었고 또 공유하는 부분도 훨씬 많아졌다. 또 '믿음과 선행'은 동전의 양면이 되었다. 앞서 엘 그레코가 활동하던 시대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하고 엘 그레코가 신앙했던 예수그리스도는 결코 다를 수가 없다. 엘 그레코의 신비적 체험이 개인적이라 할지라도 추상적 글로 표현된 문학작품이 아니고 실제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경이롭다. 그의 작품 속에서 활활 불타는듯한 구도와 채색, 그리고 하늘로 치솟는 고딕 건축처럼 하느님을 향한 치솟는 열망은 그만의 체험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열정이 아닐까?.

글/김응배 안드레아



엘 그레코 1597-1600 작, Saint Martin and the Beggar

연중
제 19주일
2023년
08월 13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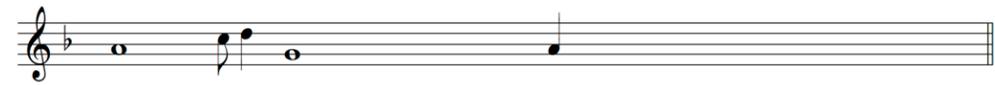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마태오 14, 28>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열왕기 상권19,9-11-13-7
- # 화답송 시편 85(84),9-11-12-13-14(© 8 참조)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9,1-5
- # 복음 환호송 시편 130(129),5 참조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 복음 마태오14,22-33
- # 성가번호 입당 329 봉헌 216, 332 성체 334, 498 파견 68



후렴.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성당 소식

🌸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 미사지향 (연미사)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최예생 - 김 스탈라

🌸 미사지향 (생미사)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최 세레나 - 이대우(베드로) 부부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이 마이클 - 오경선(원선시오)
- 성낙철(안드레아), 성경숙(아가다) 가정 - 이막동(아네스)
- 박예리(소피아) - 민 엘리자벳
- 김삼식(베드로) - 김순옥(율리아)
- 미주 청년 천주교 모임Renewal 피정 - 백상현(요셉) 가족
- 원암우(베드로) - 변모공동체
- OLM 성당 공동체 모든 구성원 - 정수지(아네스)
- 하준석(마태오) 박사과정 시작 축하 - 하연승(요한)
- 하용무(데레사) - 하연승(요한)
- 임영자(안나) - 하연승(요한)
- 김순옥(율리아) 가정 - 하연승(요한)
- 노스브런스익 구역원 - 하연승(요한)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173
- 감사헌금 \$300
- 익명 (\$300)
- 교무금.....\$2,175
- 김인자(1-12) 최율리오(3-5) 우영인(7-8)
- 박락준(8) 안현정(1-12) 허중(8)
- 이기순(1-6)

🌸 체키오 주교님의 허가를 받아 윤석로 이냐시오 부제님의 임기가 2024년 7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윤 부제님께서 메타천 교구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계속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 체키오 주교님께서 감사와 축복을 전하셨습니다.

🌸 2023 Edison KCC Golf Tournament

- 일시: 9월 4일 12:00 PM,
- 장소: High Bridge Hills Golf Club
203 Cregar Rd, High Bridge, NJ 08829
- 참가신청: Thomas Oh 917-662-8353
kitchenoh@gmail.com
- 참가비: \$120 (점심, 저녁 포함)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 곽 율리안나 방진숙(데레사)
- 정수지(아네스)

🌸 휴가철 여행 중 안전수칙을 잘 지킵시다!

🌸 2차 헌금

- 8월 27일 : Missionary CO-OP

🌸 미사 후 친교실에 준비된 간식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는 매주 셋째 주일 미사 후 친교가 있습니다

- 봉사 당번: • 9/10 먼로 • 10/15사우스브런스익
- 11/19썸머셋

🌸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안내

- 일시: 2023년 8월 15일(화) 오전 9시(영어); 오전11시(한국어)
- 장소: 성당

🌸 예비자 교리반 안내

- 9월부터 예비자 교리를 시작합니다. 예비자 교리에 관심있는 분들께 안내 부탁드립니다.(8월 31일 마감)
- 문의: 선교분과장 이서형(요안나)

🌸 전례분과 전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8월 20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회의실
- 참석: 소분과 단체장(독서단, 제대회, 성가단, 복사단)

🌸 요셉회 8월 모임 (회장: 변태용 요셉)

- 일시 : 8월 20일(주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Pho Today (101 new World Ways, South Plainfield (예약: Korean Catholic Church)

🌸 노스브런스익 구역모임(구역장: 변인순 엘리자벳)

- 일시 및 장소: 8월 27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이스트 브런스익 구역모임(구역장: 오은주 로사)

- 일시 및 장소: 8월 27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주일학교 (K – 8th Grade) 및 유스 (9th- 12th Grade)모집

- 2023-2024 주일학교가 9월 10일에 시작합니다.
- 접수: 7월 23일- 8월 30일까지 OLM성당 홈페이지 링크 이용
- 접수비: \$70/학생, \$130(2명), \$180(3명)
- 한지혜(크리스티나) 자모회장님께 전달

🌸 신앙 안에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을 잘 이끌어 주실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8월 6일 11시 30분 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완 세실리아 청소년 분과장

🌸 학생 독서단 모집

- 5학년- 유스그룹 대상으로 학생 독서단을 모집합니다. 매 월 마지막 주일 미사 중 제 2독서를 읽게 되며 미사 전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10월 미사부터 시작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8월 27일까지 신청바랍니다.
- 신청: 청소년 분과장 김수완 세실리아 suwankim@gmail.com 전례분과장 맹순영 베로니카

🌸 청년 및 소년 레지오단원 모집

- 성모님과 함께 기도와 봉사를 통해 개인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성모님의 군단에 초대합니다.
- 청년 프레스비디움 (18세 이상 남아 청년)
- 문의: 청년 Pr. 단장 정수지 아네스 732-430-5385
- 소년 프레스비디움 (첫 영성체를 한 5학년-12학년 학생)
- 문의: 꾸리아 단장 채미영 데레사 (862-579-9999)

말씀번역

🌸 제1독서: 열왕기 상권19,9-11-13-17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렘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할퀴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겹옷 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9,1-5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마태오 복음14,22-33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메타천 교구 공지

🌸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상식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포도주 안에 어떻게 현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성사에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외부적인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본질’은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빵과 포도주 안에 계십니다.이처럼 축성된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을 성변화(transubstantiation)라고 합니다.